

2018/07/16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블랙핑크, 아이콘, 위너 등 성장성 극대화 될 듯

NR

■ 올해 블랙핑크, 아이콘, 위너 등의 라인업 강화로 성장성이 확대되는 시기

그동안 동사는 실적측면에서 빅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고, 빅뱅 멤버들의 군대 입대로 인한 공백으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이콘, 위너, 블랙핑크 등의 라인업 강화로 성장성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1월 아이콘 정규 2집 '리턴'의 타이틀곡 '사랑을 했다'가 히트하였으며, 무엇보다 아이콘은 이 곡으로 아이콘만의 음악적 색을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사를 이끌 차세대 포트폴리오로 부상하였다. 조만간에 아이콘은 신곡을 발표할 예정으로 8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iKON 2018 CONTINUE TOUR' 첫 공연을 시작으로 대만, 쿠알라룸푸르, 방콕, 싱가포르, 마닐라, 자카르타, 홍콩 등 8개 도시에서 투어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위너 역시 지난 4월 정규 2집 '에브리데이(EVERYDAY)'를 발매하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대중적인 흥행 요소로 인하여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6월에 발매한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SQUARE UP)' 타이틀곡 '뚜두뚜두'는 각종 차트에 1위를 차지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듯 여세를 몰아 블랙핑크는 7월 24~25일 오사카쵸 홀, 8월 16~17일 후쿠오카 국제센터, 8월 24~26일 미쿠하 이 멧세 이벤트홀에서 3개 도시 7회 공연을 개최할 뿐만 오는 12월 24일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BLACKPINK ARENA TOUR 2018'의 추가 공연을 확정함에 따라 여름에 이어 연말까지 아레나 투어를 할 예정이다.

■ 내년 매출 상승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듯

매니지먼트사의 경우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속 연예인과의 분배비율이다. 보통 데뷔 후 7년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이때에는 소속 연예인의 흥행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분배비율이 높을 것이다.

위너 2014년 데뷔, 아이콘 2015년 데뷔, 블랙핑크 2016년 데뷔 이므로 이들의 활약이 해를 거듭할수록 동사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액면가	500원
종가(2018/07/12)	40,450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9십억원
발행주식수	1,819만주
시가총액	736십억원
외국인지분율	14.0%
배당금(2017)	150원
EPS(2017)	931원
BPS(2017)	17,816원
ROE(2017)	5.7%
52주 주가	24,850~40,450원
60일평균거래량	261,089주
60일평균거래대금	8.9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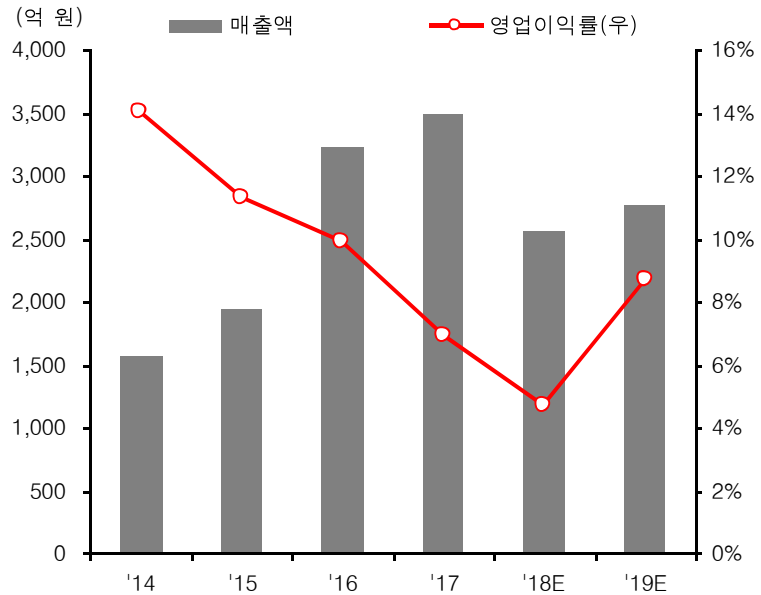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4	1,563	219	274	183	193	1,297	34.1
2015	1,931	218	332	240	279	1,700	26.2
2016	3,218	319	330	141	187	1,094	25.9
2017	3,499	242	300	119	178	931	31.0
2018E	2,550	120	168	100	95	522	77.5
2019E	2,760	240	290	206	195	1,072	37.7

자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하이투자증권

<그림 5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실적 추이



자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하이투자증권

<그림 51> 블랙핑크



자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하이투자증권

<그림 52> 아이콘



자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하이투자증권

<그림 53> 위너



자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하이투자증권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와이지엔터테인먼트)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18-07-16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헌\)](#)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9%	6.1%	-